

反共韓人捕虜釋放에對하여

(四二八六六一)

「제네바」協定과 人權精神에 依하여 反共韓人捕虜는 벌써 다 釋放
시켰어야 할터인데 UN當局들과 또 이 捕虜를 釋放하는것이 옳은것
으로 우리의 說明을 들은분들은 同情上으로나 原則上으로나 同感
을 가진것으로 내가 믿는바이다. 그러나 國際上 關聯으로해서 不公
平하게도 이사람들을 너무 오래 拘束했는것이다.

지금와서는 UN이 共產側과 協議한 條件이 國際的關聯을 더욱
複雜케해서 畢竟은 우리怨讐에게 滿足을주고 우리民族에게 誤解를
주는 흉상을 이르기엔 念慮가 있게되었다. 그러므로 이 誤解를 結
果를 避하기 爲해서 내가 責任을지고 反共韓人捕虜를 오늘六月十
八日로 釋放하라고 命令했다.

UN司令官과 또 다른 關係當局들과 充分한 協議가없이 이렇게
行한 理由는 說明치안어도 다 알것이다.

各道知事와 警察官吏들에게 指示해서 이釋放된 捕虜들을 아무조
록 잘 指導保護케 한것이니 다 그職責을 行할것을 믿는바이다.
우리 모든 民衆이나 親舊들이 다 協調해서 어의서던지 不必要한
誤解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것을 믿는바이다.

아이젠하워美國大統領에게 보내는 回翰

(四二八六六一)

親愛하는 大統領閣下

나는 첫째 六月六日付 貴翰에對한 回答이 이같이 늦어서 未安히
압니다. 事實인즉 便紙抄를 잡은것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내立場
을 밝히려니 自然따지는것같고 또 따지는듯이 보이고는 싶지않았든
것입니다. 友情으로 이글을 쓰오니 友情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友邦들에게 밝히 밝히하기를 中共侵略者가 韓國

에 남아있음을 容許하는바위의 停戰이 成立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없다고 하였는것인바 이런 不安은 조금도 減하지않았읍니다. 우리

友邦들은 中共의 撤退와 韓國의統一이 停戰後에 오기르된 政治會

談에依하여 問題없이 成就되리라하고 보고있는듯 합니다. 나는 이點

에對하여 臆辭說을 하고싶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것이 可能하다고

믿지않는다는것만은 말해두어야 될줄로 느낍니다. 이것이야 勿論

意見가지기에 달린다면겠으나 우리의 意見은 默殺하려야 默殺할

수없고 이즐려야 이즐수없는 事實에依하여 支持되고 있습니다. 우

리自身이거곤 經驗은 그것을 疑心할수없이 扶消하여주는 事實

이 생길때까지는 우리判斷의 指針으로 依然히 되어갈것입니다.

只今 國際聯合은 韓國은 어찌되든間에 거의 念頭에 두지않고

共產侵略者들과 休戰協定을 締結하려고 하고있는만큼 우리가 또대

체 國家로 存續할수있는가하는 疑問이 우리생각에 不斷히 往來하

고 있습니다. 時局에對한 우리의 反響이 어떤가는 다음글을 보시면

대강 짐작하시게 될줄압니다.

世界共產侵略에對한 이鬭爭에있어 軍事 經濟兩面에걸쳐 우리에게

莫大한 援助를준 事實을 回憶하면서 우리는 最後까지 美國에 友

誼를 가지기를 뜻합니다. 만약 美軍이 무슨理由로하여 以上鬭爭

에 介入함을中止하고 비켜스게되거나 停戰의餘波로서 韓國에서 全

部撤收하게되드라드 우리는 反對할 意思가 없습니다. 그들이 韓國

에서 撤收하는것을 必要한다든지 或은 하염주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友情을 支續하려는거나 마찬가지로 好感을가지고 撤收할수

있는줄압니다. 彼此 相對方的 計劃을 妨害만 안는다면 兩者間의

親善關係는 維持될수있을것입니다.

세들때되는 이戰爭의 첫째에있어 美國과 國際聯合이 있글어가며